



蘇州地枯米二鈞  
 此林枯木潤蒼松  
 蘇州地枯米二鈞  
 此林枯木潤蒼松

間에서 물러나 있을 때의 것일 것이며 題詩에 나타나 있듯이 그의 그림에 대한 識見은 相當히 높았던 듯하다. 도토리나무와梧桐나무또 하나의 枯木을 主位로 殘山과 剩水를 그리고 있으며 桐葉의 淡綠은 구슬처럼 곱다. 도토리나무의 墨色도 蒼潤, 南唐의 花鳥畫家 徐熙의 沒骨法을 自處하였고 岩山은 五代宋初 范寬의 山骨法을 聯想하면서 느끼게 渴筆寫하고 있다. 題詩에 關聯되는 歷史上의 畫人들은 殘山剩水의 馬, 夏를 넣는다면 네사람이나 된다. 그러나 그들의 畫格이 加味는 되었어도 理想化된 그림은 아니며 特히 右便에 展開되는 山은 내와 느끼게 傾斜진 野山은 修飾없는 우리 나라의 山水를 나타내고 있다. 遠山은 減筆法에 의하여 一筆로 淡靑彩하였고 도토리나무의 混點과 岩山의 點蓋는 뚜렷이 畫面에 抑揚을 주고 있다. 茶山은 勿論大學者지만 專門家를 超越한 文人畫家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左下隅 藏印의 主人公 洪顯周는 正祖大왕의 駙馬라는 것 以外에 더 밝히지는 못하였다.

이 山水는 故潤松의 舊藏, 金庠基先生께서 回甲月餘前에 받으신 것이

다. 潤松은 이에 대하여 아무言表도 없었으나 그날의 快飲으로 아슬러 回甲을 豫祝했음이 分明하다.

### 密陽舞鳳寺의 石造光背와 石佛坐像

鄭 永 鎬

密陽邑 舞鳳寺 ①에는 堂宇로 二棟이 있는바 그中 七星閣에는 石造光背가 一座……大雄殿에는 石佛坐像이 一軀遺存되어 있어 注目되어 오던中 지난 一月初에 同人, 黃壽永 秦弘燮 兩氏의 周旋으로 同寺를 訪問하여 調査한 바 있기에 簡單히 紹介하려한다. 傳聞한 바에 依하면 此遺物들은 모두 隣近의 嶺南寺址 ②에서 移置되었으며 그中 光背는 出土品이라고 한다 (住持 林法泉和尚 및 洞人들의 談話)

註

① 邑內 舞鳳山麓에 嶺南樓가 있고 이 곳에서 約一〇〇m 떨어진 山中턱에 舞鳳寺가 位置하였다. 原來는 衙東山舞鳳寺이었으나 오늘날에는 舞鳳山이라 改稱되었으니 이것은 곧 「舞鳳寺」名에서 由來된 것이라함 (住持談話)

② 嶺南寺址에 對하여서는 東國輿地勝覽卷之二十六 密陽郡護府樓 亭條 嶺南樓에……在客館東. 即古嶺南寺之小樓. 寺廢. 至元乙巳. 金湊爲知郡. 因舊改創. 因以寺名名之. 云云……라 있어 古刹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嶺南樓名의 由來도 찾을 수 있다.

#### 一、石造光背

花崗石製이며 埋沒되어 있었으므로 各部에 土色이 보인다. 舟形光背로 表面의 彎曲度는 큰便이 아니다. 化佛이 配置된 火焰二重輪光으로서 高一五一cm 廣幅一〇〇cm 下幅七五cm의 完品이다. 二組의 陽刻線으로 頭身光을 區分하였는데 頭光은 中心이 垂下된 圓座(徑四五cm)를 八瓣의 單蓮文으로 둘러싸고 그 周邊에 唐草文이 있으며 이 唐草文帶는 다시 左右로 내려와서 身光을 區劃하였다. 光背의 下部에 이르러서는 雲文이 있



고外緣으로 돌아서  
火焰文이 彫刻되었  
는데 그手法이 流  
麗하며 各紋樣의 彫  
飾이 華奢하다. 化  
佛의 都合五軀로서  
頂上部의 一軀(高二  
四cm 幅一六cm)를 비  
롯하여 頭光의 左右  
二輪上과 身光下部  
의 左右二輪上에 各  
各一軀씩(高二一cm  
幅一四cm)을 配置하  
였는데 모두 背面에  
는 舟形光背를 刻하  
고 五瓣의 蓮花座上  
에 結跏趺座 하였  
다. 各化佛의 手印  
은 頂上部만이 觸地  
降魔印을 結하였고  
他四軀는 모두 臍前  
에서 合掌하였다.

厚一〇cm의 光背

背面에는 高九七cm의 座佛이 一軀浮彫(七cm)되었는데 四瓣(二瓣幅一三cm)의 仰蓮座上에 結跏趺座한 如來像으로서 光背는 없고 그 周邊을 平坦하게 다듬었을 뿐이다. 素髮로 頭頂에는 큼직한 肉髻가 있으며 相好는 兩眉目이 刻明치않고 秀麗하지 못하나 양볼은 豊美하며 口唇은 柔和하여서 肩上까지 길게 내려진 兩耳와 잘 어울리어 慈悲스럽다. 右肩偏袒한 衣紋은 流麗하며 左腕을 걸쳐 廣幅하여져서 兩膝을 덮었다. 手印은

오른손을 右膝上에 놓아 觸地印을 보이며 왼손에는 臍前에서 寶珠를 들고 있는데 그 彫法이 부드럽다. 實測値는 頭高三五cm 肩幅四四cm 胸幅二七cm 膝幅六四cm이다.

光背表面에서 豊美한 蓮瓣과 各部 紋樣配置의 莊重하고도 纖麗한 彫法으로 이루어 보아 羅代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以上과 같이 光背裏面에 佛像을 彫刻한 類例는 慶州 南山①에서도 볼 수 있는바 兩山의 遺物과 此品의 兩者는 그 手法이나 彫飾 등으로 미루어 보아 거의 同代②의 것으로 推定되었다.

註

① 慶州 南山의 彌勒谷 傳菩提寺址 石造如來坐像의 光背(慶州 南山의 佛蹟) 參照)

② 南山의 遺物은 羅代의 代表作인 바 이에 比하면 此品도 光背背面에 座佛을 浮刻한 樣式手法이 南山의 類例와 同一하며 化佛의 配置等이 古格하고 各文樣의 彫刻이 秀麗하여 優作임에 兩者는 거의 同時代作으로 推定된다.

二、石佛坐像

花崗石製인 바 屋內에 오래 遺存되어서 雨露를 맞지 않았던 탓인지 純白으로 마치 새로 彫刻된 感을 준다. 高九七cm로 結跏趺座하고 觸地降魔印을 結하였다. 螺髮로 髮이 굵고 頭頂에는 얇은 肉髻가 있다. 兩眉間에는 白毫가 있으나 最近에 水晶으로 新造한 것이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兩眉目과 口唇 等에는 靑과 紅으로 彩色하여서 本然의 威容을 喪失한 感이 있으나 豊滿한 양볼과 길게 늘어진 兩耳가 잘 調和되어 相好가 尊嚴하다. 通肩한 法衣는 流麗한 衣文이 두 팔을 걸쳐 兩膝을 덮었고 胸前에는 裙衣가 보이며 臍前에 結帶가 있다. 비록 臺座와 光背는 缺하였으나 佛像의 頭部等 各部에 傷痕이 없는 完品으로서 胴體의 整美함과 流麗한 手法 등으로 미루어 보아 羅末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實測値는 頭高三六cm 肩幅五四cm 胸幅三〇cm 膝幅七五cm이다.

한편 以上 紹介한 光背와 座像에 있어서 重要한 問題는 兩者間의 關係로서 或時 光背가 此坐像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疑問이다. 그러나 그것은 大體的으로 筆者가 調査한 바 兩者가 別個로서 全혀 關聯없는 것으로

推定되었으나 그理由로서는...兩石材가 共히 花崗石이나 그石質이 異質이라는點 ① 其中 一은 出土品으로서 發見場所가 同一 處는點 ② 各部의 彫刻手法에서 光背가 一層 優作이며 同代作品이 아니라는點과 兩者를 一雙으로 假定하고 볼때 均衡이 맞지 않는다는點 ③ 等이다.

註

- ① 現存 佛像의 大概가 그 光背와 同一石質임
- ② 或時 光背가 倒置되고 埋沒되었더라도 佛像과 同一한 場所일것이 며 더욱이 그렇지않고 完品을 移置하였다면 光背를 放置하고 佛像만 安置하였을 리가 없을 것이라느點
- ③ 光背는 羅代의 優作인데 對하여 坐像은 時代가 降下된것으로 推定되며 兩者의 實測値에서 高·幅 等の 均衡이 맞지않음

### 三、其他遺物

以外的 遺物로 前庭에 花崗石製의 蓮花臺石 一座와 七星閣後便에 磨滅이 甚한 坐佛이 一軀 遺存한다. 臺石은 高二〇cm 徑七〇cm 로 八角(一邊長二一·五cm)이며 그 周邊(徑五〇cm)에 十六瓣의 覆蓮을 陽刻하였는데 年代는 麗代로 推定되었다.

坐像은 約二〇年前 山麓部落에서 出土된 것을 移安한 것이라 한다. (洞人談話) 舟形光背(高九〇cm 廣幅五六cm)面에 浮彫한 바 結跏趺座하여 觸地降磨印을 結하고 左手에는 持物이 있으나 極甚한 風磨로 法衣等도 刻明치 않다. 實測値는 高七〇cm 肩幅三八cm 胸幅一九cm 膝幅四八cm 로서 年代는 麗代中期로 推定되었다.

## 青磁素文方臺의 新例와 考察

金正基

英國에서 韓國古美術品展示會가 열리고 있던 어느날 V.&A 博物館東洋課長의 好意와 앞선으로 우리들은 옥스포드大學附屬博物館을 見學할 機會를 가졌다. 이 博物館은 新築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므로 그때에는 아직

開館하지 않고 所藏品을 整理하고 있을 때였다. 우리들은 未整理의 藏書에서 몇點의 우리나라 陶磁器를 찾아내서 撮影하며 觀察하였던 것이다. 이들 遺物 가운데서 우리들의 興味를 끈것이 지금 말하려 하는 青磁素文方臺와 青磁象嵌菊花文片口碗 青花白磁辰砂花草文壺外에 黑釉접시가 얼마간 있었다.

青磁素文方臺는 그 형태 및 質이 國立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青磁素文方臺 ① 와 거의 같으며 그 差異點이라고는 大學의 것이 그 크기가 적고 臺 側面에 眼象이 새겨져 있는 점이다. 즉 크기는 實測을 하지 않았기에 正確한 數字를 밝힐 수 없으나 臺의 一邊이 約一〇cm 높이 約五cm 程度였다. 그 형태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隅入形이다. 上部는 一段 좁아져 段을 이루어 上面部로 되며 上面은 역시 中心部를 向하여 傾斜지어 낮아지며서 臺의 平面과 같은 모양의 平坦한 中央部에 達한다. 臺의 側面에는 上椽과 下端에 좁은 턱이 있어 四側面에는 各各한 개씩의 眼象이 새겨져 있다. 眼象의 모양은 簡素하면서 端正한 所謂 合掌式의 眼象으로 兩側으로 내려가는 線은 심히 彎曲한 裝飾化된 形式이다. 方臺의 陶質은 灰白色 胎土 위에 짙은 翡色 釉藥이 덮혀 있어 釉裂

